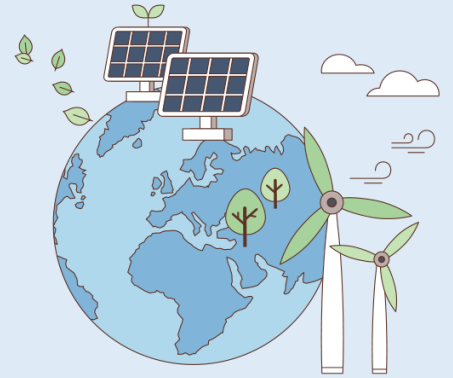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美, 기후변화 대응 비용 두 배로...차세대 기후 시스템도 개발 *뉴스1*
- 두산중공업, 화학제 없이 폐배터리에서 리튬 추출하는 기술 개발 *연합뉴스*
- SK건설, 'SK에코플랜트'로 새 출발...2023년까지 친환경사업 3조원 투자 *뉴스1*
- 아세아한라시멘트 "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 25%감축할 것 " *한국경제*
- 영국 정부, 탄소포집 등 녹색기술에 2660억원 지원한다 *한겨레*
- 삼양사, 친환경 '썩는' 플라스틱 상용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 엑손모빌,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에 이사자리 2개 빼앗겨 *조선비즈*
- 에코프로비엠, 포항 양극재 공장 증설에 1340억원 투자 *뉴스1*
- HMM "2050년 탄소배출중립 달성하겠다" *동아일보*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계열사 받쳐주고 지주사 지분 사고...CJ4세 승계작업 '착착' *뉴스웨이*
- 우리금융지주 " 국내 최초로 준법경영체계 국제표준 인증 " *연합뉴스*
- [GS리테일-홈쇼핑 합병 초읽기] <상>GS리테일 '합병', '허연수 체제' 굳히기 *아주경제*
- 한컴 '2세 경영' 본격화...38세 김연수 부사장 이력보니 *머니투데이*
- 아모레퍼시픽 후계자 서민정, 승계 작업에도 '빨간불' *주간동안*
- SI 내부거래 해묵은 논란 ... 말 뿐인 '그룹 의존 탈피' *이코노미스트*
- [5대 금융그룹 지배구조 대해부④] 그들만의 '돈잔치'는 계속된다 *이코노미스트*
- 신동빈, 케미칼 지분 지주에 전량 매각... " 상속세 재원 마련 관측 " *뉴스1*
- 한화그룹 ESG 경영 박차...계열사 지원 그룹 위원회 신설 *연합뉴스*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롯데케미칼, 가스안전공사와 석유화학시설 안전 강화 업무협약 *연합뉴스*
- 삼성중, 크레인 참사 4주기에 또 사망사고... " 안전 최우선 " 어디로 *이코노미스트*
- 죽어서도 억울한 산재 불안정 노동자, 은폐가 인정보다 2배 *파이낸셜뉴스*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또 한번의 법 개정...이번엔? *프라이مج제*
- KT '광화문 원팀' 출범...나눔-상생으로 ESG 가치 실현 *연합뉴스*
-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앞두고 ESS 리콜 *시사포커스*
- '정규직 전환' 외쳤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무더기 해고 *매일경제TV*
- " 안전사고 예방 " ...삼성물산, VR활용 장비안전 교육프로그램 도입 *뉴스1*
- "300명 퇴사 러시"...SK하이닉스 기술직노조 "경영진 책임져라" *조선비즈*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기준 포트폴리오 곧 도입...10년 단위 전략 나온다 *연합인포맥스*
- 은퇴한 전설의 투자가 불러낸 기호테크...美산불이 판 키웠다 *중앙일보*
- 사모펀드도 'ESG'... 스틱, ESG 원칙 적용 펀드 결성 *이코노미스트*
- LH, 6300억 ESG채권 발행...2024년까지 전체 채권 발행액 50%까지 확대 *이투데이*
- 은행권 녹색채권 속속 출격...'그리니엄' 훈풍 *연합인포맥스*
-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29일 출범 *경향신문*
- [자산운용사 ESG 열풍] ①경영활동에 ESG 내재화 추진...위원회 설립 본격화 *아주경제*
- 증권사도 ESG에 꽃혔다, 관련사업 2조 넘게 투자 *중앙일보*
- 중부발전 1,500억 규모 ESG채권 발행 *파이낸셜뉴스*

ESG FOCUS UPDATES

ESG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 자본시장연구원 21.05.26

E

- 재무보고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IFRS 재단이 제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을 ESG 관련 비재무보고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이 기존 재무보고 기준과의 연계성, 국제 적합성 측면에서 합리적인데, 다만 ESG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IFRS재단의 ESG 보고기준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공시체계의 현상을 유지(status quo)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정책당국은 공시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우선적으로 ESG 공시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강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였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203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를 확대해나갈 예정임. 다만 현재 대규모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보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ESG 대응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시 수준 또한 더 열악하다는 점에서 공시의무화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한정 짓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음
- 하지만 의무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이행부담이 편익을 초과하는 상황, 즉 규제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기에 사업위험과 관련한 필수적인 ESG 정보에 한해 의무공시를 최소화하고 자율공시를 우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공시의무 일정을 대폭 앞당긴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ESG 보고기준 제정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감안할 때 향후 IFRS재단의 ESG 보고기준 도입 시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유발할 것임
- 따라서 현재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ESG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하는 지 논의가 필요함.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성 여부는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음. 공시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을 높여 구체적으로 각 중요 ESG 사안이 기업의 장부가치, 이익성장, 할인을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예측 가치를 포함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 자본시장연구원 21.05.26

S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단기적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두는 주주 자본주의가 양극화, 기후변화 등의 한계를 드러내자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고르게 추구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ESG 경영은 바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환경문제, 사회문제의 외부효과와 주주-이사회 간 대리인 문제를 기업 스스로 내재화한 경영 전략을 뜻함
- 기업이 유인을 갖고 ESG 경영을 촉진하려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 첫째, ESG 가치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유인부합적 ESG 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ESG 가치를 자본화하고 이를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ESG 자원 배분을 통해 사회적 성과를 얻은 기업들은 이를 ESG 거래 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재무적 이익을 거둘 수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 ESG 성과 연계 금융 중개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ESG 채권은 녹색 채권, 지속가능 채권, 사회적 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ESG 가치에 부합하는 경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지만, ESG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반 채권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가정함
- 무엇보다도 ESG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 당국과 관리 기관은 ESG 혹은 그린워싱(ESG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과 호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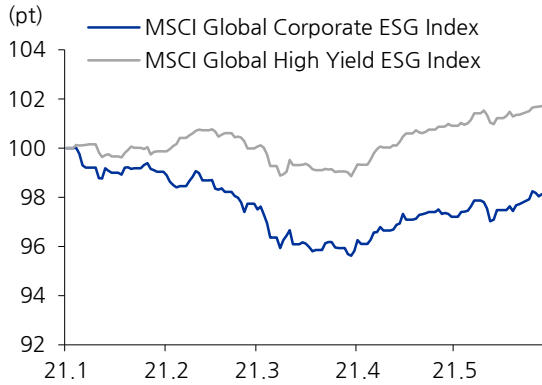
- 자본시장연구원 21.05.26

G

- ESMA(2021)는 2020년 말 기준 유럽 상장회사를 투자 유니버스로 삼는 ESG ETF 중 AUM 규모 상위 20개 중 17개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대해 ESG 평가 방법론에 따라 투자 유니버스와 편입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수에 자금이 집중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현함. 또한 지수 산출 기관이 ESG 평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지수 성과에 대한 경쟁 압력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잠재해 있다는 점도 지적함
- 국내의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서스틴베스트를 예로 들 수 있음. 서스틴베스트의 경우는 평가 결과의 활용이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KCGS는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 이들이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초데이터는 사업보고서, 지속가능 관련 보고서 등의 기업 공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감독 기구와 지자체 등의 공시 자료와 미디어를 통한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음
- 양 기관은 매년 10월에 경기 등급을 산출함. 개별 E,S,G 각각에 대한 산정 데이터를 갖고 양 기관 간 교차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두 평가사의 의견이 환경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치하고 지배구조에서는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환경 분야의 평가 항목이 다른 부문에 비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이 객관화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공히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추론 가능. 반면 지배구조는 평가 항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정성적인 판단을 요함
- 양 기관의 종합등급 간 상이율은 60.3%이고, 서스틴베스트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78.9%의 경우는 등급 한 단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상호상관은 0.61로 평가 방향의 일관성은 높다고 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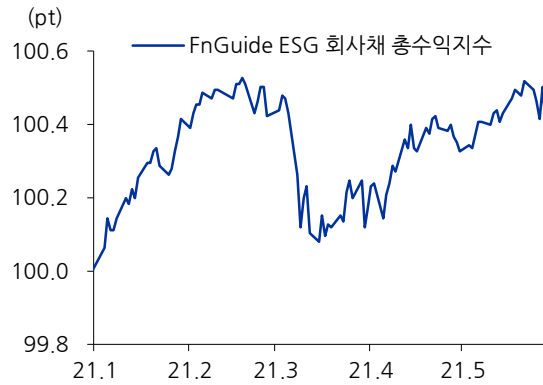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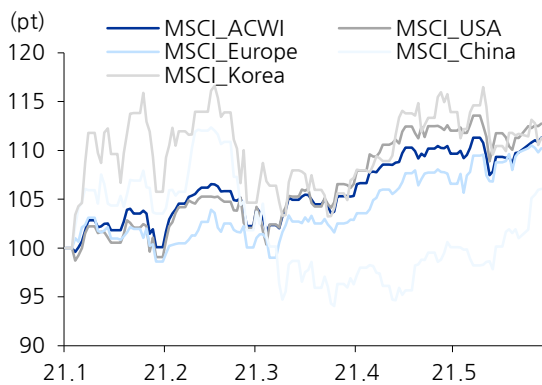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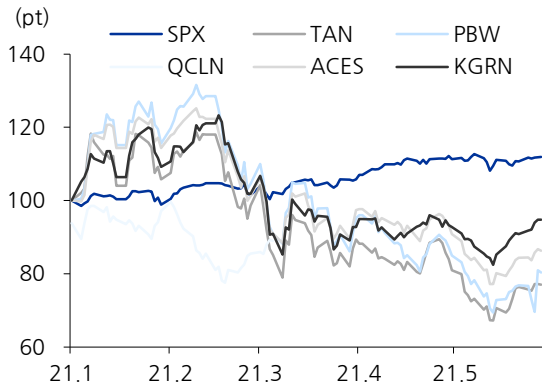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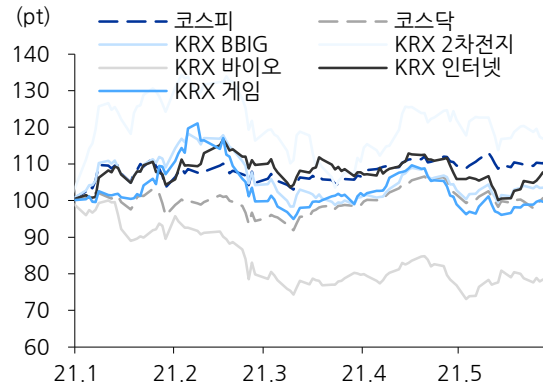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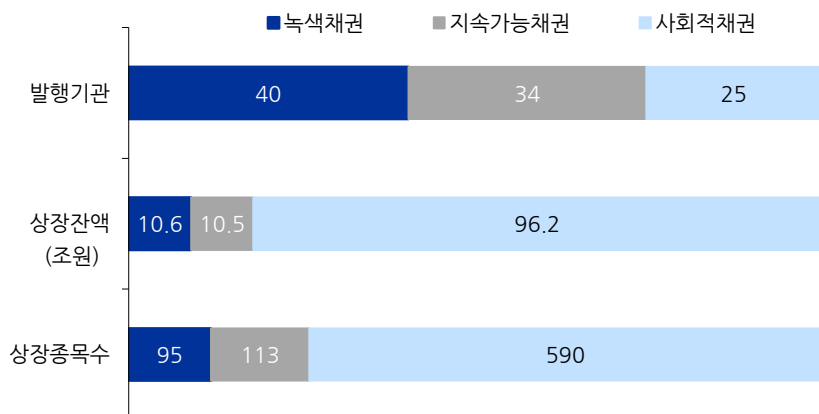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지속가능채권	한국중부발전 62-1(지)	2021/05/28	1.93200	130,000
지속가능채권	한국중부발전 62-2(지)	2021/05/28	2.21800	20,000
녹색채권	KB 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6-2(녹)	2021/05/28	3.60000	110,000
지속가능채권	이지스자산운용 7(지)	2021/05/28	3.00000	40,000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10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05/28	1.26100	147,696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8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05/28	1.47100	493,320
사회적채권	신보 2021 제 9 차유동화전문 1-1(사)	2021/05/28	1.47100	108,357
지속가능채권	현대커머셜 406-1(지)	2021/05/27	1.08600	7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커머셜 406-2(지)	2021/05/27	1.28700	3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커머셜 406-3(지)	2021/05/27	1.28700	2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커머셜 406-4(지)	2021/05/27	1.56400	10,000
지속가능채권	현대커머셜 406-5(지)	2021/05/27	1.56400	2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27(사)	2021/05/27	1.79900	16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28(사)	2021/05/27	1.06600	180,000
녹색채권	토지주택채권 398(녹)	2021/05/27	1.82000	230,000
녹색채권	토지주택채권 399(녹)	2021/05/27	2.20500	160,000
녹색채권	토지주택채권 400(녹)	2021/05/27	2.32600	240,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캐피탈 328-1(지)	2021/05/25	1.03400	60,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캐피탈 328-2(지)	2021/05/25	1.21800	50,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캐피탈 328-3(지)	2021/05/25	1.26800	60,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캐피탈 328-4(지)	2021/05/25	1.31800	60,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캐피탈 328-5(지)	2021/05/25	1.45100	50,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캐피탈 328-6(지)	2021/05/25	1.57400	10,000
지속가능채권	하나캐피탈 328-7(지)	2021/05/25	1.68700	1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3.31 기준)